

# 대한민국 대표 K-공예문화로 도약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으로 명칭 새단장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이 제29회를 맞아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이하 대전)으로 명칭을 새롭게 단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후원하는 이 대전은 2018년부터 국무총리상을 최고 훈격으로 시상해온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옷칠 목공예 분야 공모전이다.



제29회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 포스터

공예 분야 활성화에도 씨앗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전은 지향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공예문화인 옷칠 목공예분야의 전통 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현대적 예술성을 조망함으로써 옷칠 목공예의 새로운 트렌드와 가치를 제시함에 있다. 특히 전통 목공예 기술 중 하

나이자 남원을 상징하는 목공예 기술인 같이 공예(Wood turning) 분야는 이 대전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으로 손꼽힌다.

접수 대상은 옷칠 목공예, 같이 공예 2개 분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출품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이나 서울 남원장 학습에 직접 출품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전년보다 10건이 더 증가한 총 47건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 총 1억 4,000만원(대상 4,000만원)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제96회 남원 춘향제 기간 중 남원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오는 4월 15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수상작은 남원(안숙선명창의 여정, 5월) 전시를 시작으로 전주 한옥마을(공예품전시관, 6월), 2026 공예트렌드 페어(12월) 등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대전을 통해 옷칠 목공예 전통문화를 이어 오늘날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인·작가들이 조명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국 문학 거장' 황석영 작가 초청 강연

군산시립도서관, 22일 '할매' 출간 기념 황석영 작가 x 류보선 교수 특별 대담 진행

군산시립도서관에서 22일 저녁 7시 한국 문학의 거목 황석영 작가를 초청하여 '군산작가 특별강연'이 열린다.

이번 강연은 새해를 맞아 매일의 삶에 인문학에 은기를 더하고자 운영되는 '인문 특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지난 13일 진행된 백수린 작가 초청 강연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문학적 감동을 선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그 열기를 이어갈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할매' 출간 기념 황석영 작가 x 류보선 교수 특별 대담이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최근 출간되어 문단과 독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황석영 작가의 장편소설 '할매'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류보선 교수(문학평론가)가 대담자로 나서, 황석영 작가와 깊이 있게 소통하는 대담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평론가의 날카로운 해석과 거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작품 속에 담긴 군산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풀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소설 '할매'는 군산 하계마을의 600년 된 팽나무 '할매'를 화자로 내세운 작품인 만큼, 이번 강연은 군산 시민들에게 더욱 각별하고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관리과 관계자는 "새해를 시작하며 백수린, 황석영 작가와 같은 국내 최고의 작가들과 시민들이 만나는 인문특화 시리즈를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시립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인문특화프로그램

## 군산작가 특별강연

### 황석영 작가 x 류보선 교수

사전접수: 2026. 1. 15.(목) 10:00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

**일시**  
2026. 1. 22.(목) 19:00 ~

**장소**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지하1층)

**대상**  
중학생 이상 군산시민 100여명

**문의**  
군산시립도서관 063-454-5630

강연하는 거목, 대담자는 당신의 생리  
팽나무처럼 묵묵히, 당신의 새해도 단단하게 뿌리 내리길

애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거장의 깊이 있는 통찰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하는 참여자는 시립도서관 누리집 및 전화로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관진흥계(063-454-563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 성료

송가인·소향·존 노·강혜정 출연  
최정상급 아티스트 감동 무대 선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도민과 고객을 위한 신년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6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고객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공연에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45인조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웅장한 연주를 선보였으며, '내일은 미스트롯' 초대 진 송가인, 세계적인 보컬리스트 소향, 미국 원더리 보이즈 콩쿠르 우승자인 테너 존 노, 소프라노 강혜정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약 2시간 동안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신년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6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

박춘원 전북은행장은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도민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국립군산대 평생교육원, 'ART & LIFE' 전시회 개최

26일까지 수강생 작품 50여점 전시

국립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예술 분야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완성한 작품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ART & LIFE'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립군산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이 일상 속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낸 서예·문인화 & 캘리그래피, 서양화, 민화 분야의 작품 총 50여 점이 출품됐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평생교육원 수업을 통해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전담 강사의 지도와 함께 꾸준히 작업하며 완성한 작품을 전시로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수강생은 "취미로 시작한 미술이 어 느새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며, "이번 전시가 개인의 배움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예술



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 평생교육원 오연풍 원장은 "이번 특별기획전은 평생교육을 통해 배움이 삶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수강생들의 열정과 창작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문화·예술을 통한 평생학습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군산대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평생교육 및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발표회 등 성과 공유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